

“군서·학산면 일대 聖人·君子 나올 명당”

■ 영암의 길지(吉地)

도학(道學)의 고장 영암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크게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은 산세와 형국이 크게 다르고, 음양택의 기운과 땅의 성정(性情)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암의 땅 기운과 그에 따른 인정(人丁)의 배출은 월출산의 형상만큼이나 굴곡과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암군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시종면, 도포면과 나주시 공산면, 왕곡면, 반남면, 세지면 등 월출산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의 호남정맥인 월출산 한 자락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역기(逆氣)하고, 수 십 절의 아름다운 연주맥(連珠脈)이 다정하게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음·양택을 결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영산강 금성수(金星水)가 요대처럼 환포(環抱)하여 지기(地氣)의 누실을 막아주면서, 병오방(丙午方)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뜨거운 월출산의 화기(火氣)를 조절해주는 수화기제괘(水火既濟卦)의 땅이다. 민약에 정철처(正

“시종면 여시머리 재물 넘치는 땅”

穴處)에 입향(立向)과 재혈(裁穴)을 합당하게 용사(用事)한다면, 그 소음(所應)이 어느 곳 보다 빠른 지역이다. 특히 월출산이 조안(朝案)으로 이루어진 명당이라면, 그곳은 소위 ‘오시하관(午時下官)에 미시발복(未時發福)하는 자리로서 인정과 재물이 넘치는 땅이다. 다만 볼텍스(Vortex)의 규모가 대단히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하여, 북쪽에 월출산과 견줄 수 있는 높은 산이 없어서 양택(陽宅)의 운로(運路)가 길지 못하다. 또한 지기가 불안정하며, 명당의 휴식기간이 길어 곡운과 관련된 인물이 탄생하는 빈도는 서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월출산 서남쪽에 위치한 군서면, 학산면, 서호면, 삼호면 일대는 재왕이 쓰는 금관, 그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16>



영암에는 월출산 구정봉의 14대 천자지(天子地) 외에 군신취연형, 군신봉조형, 군왕지(君王之地) 등 명혈길지(名穴吉地)들이 많다. 계좌정향(癸坐丁向)의 길지인 연주안(連珠案).

리고 재왕이 집무를 보는 용루(龍樓)와 잠을 자는 보전(寶殿) 등을 빼놓은 월출산을 등지고, 수구가 고결관쇄(交結關鎖)하면서 다양하고 기괴한 라성(羅星)이 둘러 있어서, 일국의 총리나 대통령쯤은 말할 것이 못하고, 도학군자(道學君子)나 성인이 태어날 수도 있는 땅이다. 특히 군서면과 학산면 일대에 결지(結地)한 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춘 명혈들은 대부분 후천(後天) 상원갑자의 운로를 기다리고 있다.

영암에는 월출산 구정봉의 14대 천자지(天子地) 외에 천황봉하의 군신취연형(君臣聚案形), 도갑산 낙맥으로 금생제(金生堤) 안쪽에 숨

어있으면서 혈이 배꼽에 있는 군신봉조형, 이처

사(李處士)가 썼다가 파혈된 삼호면 한라조전소 부근에 있는 가거도 군왕지(君王之地) 등의 제왕지지가 있다.

이 외에 영암의 명혈길지(名穴吉地)들을 살펴보면 우선 호남정맥이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국사봉(國師峰) 아래 금정면 연소리에 있는 연소형(燕巢形)은 견해입수에 임좌병향으로 혈이 나 있다. 그런데 입향과 재혈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석과 비석을 세워 후손들 스스로가 발복을 못하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근래에 축조된 저수지 공사로 날아오는 제비의 머리가 잘려나가면서 파혈돼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은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금오탁시형(金烏啄屍形)이 회룡고조형으로 송장고개를 바라보며 혈이 맺혔다. 음양택이 구길(具吉)하고 진응수(眞應水)가 있어서 혈을 찾기는 쉬워도 재혈이 어려운데 금정면 일대에서는 가장 큰 자리로 제왕지 못지않은 곳이다. 그 아래 계좌정향에 연주안(連珠案)의 흡없는 적룡희주형(赤龍戲珠形)이 도로변에 버려져 있지만 장후삼년부(始發)하는 금곡같은 땅이다.

구정봉아래 견해맥에 반월형이 있고, 읍내 학송리 부근의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은 문화유씨 선산이며, 덕진면 금성상 아래에는 행주형(行舟形)이 있다. 신북면 서당동의 연화부수형은 문화유씨 선산이며, 도포면 연화동에는 연화부수형이 들 가운데에 있으며, 시종면 월동에는 반월침장형(半月沈江形)이 물가에 있는데 재혈이 어렵다. 또 시종면 여시머리에는 늙은 여우가 닭을 물고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개를 뒤돌아보는 노호망구형(老狐望狗形)이 있는데 누대에 걸쳐 재물이 넘치는 땅이다. 그 아래에 사나운 암탉 앞에서 잔뜩 독이 올라있는 지네 한 마리가 꼬리를 세우고 있는 오공형(蜈蚣形)은 자손이 번창하는 곳이다. 영암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종면 봉소리의 봉소형(蜂窠形)은 그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명당이 협소하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다.

영산강 금성수, 월출산 火氣 조절

학산면 삼월리 뒷산에 있는 반월형은 손사룡에 숨은 규각(圭角)에 혈이 났으나 보기가 쉽지 않는데 당국이 화려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그 뒤편 금성제와 읍치제 사이에 기룡형(騎龍形)이 있는데 삼황제가 나란히 급제하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형세를 이루고 있다. 서호면 영모정 부근에 있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그리고 미암면 선황산(仙皇山)아래의 선인포금형(仙人抱琴形)과 남산리에 있는 주마탈안형(走馬脫鞍形)은 백두대간 말락(末落)의 대혈들이다.

/전중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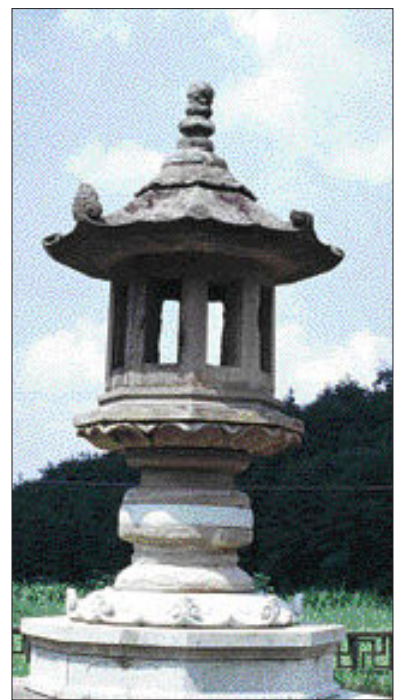
■ 전라도 역사이야기

-담양 개선사지 석등

신라 승려 곡식으로 논 구입 最古 토지매매문서 새겨져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폄하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식민사관(植民史觀) 중에는 19세기말 한국의 경제발전 정도가 유럽이나 일본의 고대나 중세사회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식민지배 이전의 한국사회를 변화가 없는 정체된 사회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역사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학자들은 서양에서 배워온 경제학 이론을 도입하여 이런 역사 주장을 과학적인 것으로 포장하였고, 그 영향력은 해방 이후까지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일본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정체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토지의 사적소유권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조선 후기 일부 토지에 보이는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고대나 고려시대까지는 아예 토지의 사적 소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해방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고대부터 토지의 사적 소유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양 개선사지 석등.

담양군 남면 학선리 개선사지에 있는 석등은 바로 우리나라 고대의 토지사유를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석등의 화창석(火窓石)에는 신라 진성여왕 때인 891년 입운(入雲)이라는 승려가 100석의 곡식으로 공서(公書)와 준휴(俊休)라는 사람으로부터 각

기 10결(結)과 4결(結) 도합 14결(結)의 논을 샀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지매매 문서인 이 새겨글에는 매매 사실 뿐 아니라 매매된 논 위치와 형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신라시대의 토지매매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매매문서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보통 종이에 기록하기 마련인 토지매매 사실이 왜 석등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토지를 구입한 승려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사찰의 석등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석등에 사용할 기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매매사실을 특별히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이 석등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신라시대의 토지매매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석등이 있던 사찰도 사라져 버리고 여기에 기록된 논이 어느 곳에 있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석등의 기록은 천년을 넘어서 당시의 역사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888년에 왕실의 후원하에 만들어진 이 개선사지 석등은 토지매매에 관한 기록과는 별도로 제작 연대가 알려진 석등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선식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15)

우리말의 보조사 중에 ‘~커녕’이 있다. 이것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부정함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할 때 쓰는 말로 “~은 고사하고 ~조차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다. 예컨대 “밥커녕(은) 죽도 못 먹는다. 그 녀석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는 체도 않더라”와 같은 말이 그렇다. 바로 이 말에 대응한 전라도방

밥커녕은 죽도 못 먹었소

언이 ‘~캥이’이다. “밥캥이는 죽도 못 먹었소”와 같다. 그런데 이 말은 중앙어와 견주어볼 때 용법상 차이가 있다. 즉 표준어에서는 ‘~는/은커녕’과 같이 ‘커녕’ 앞에 보조사 ‘는/은’이 붙을 수 있으므로 ‘밥커녕’ 대신 ‘밥은 커녕’을 쓸 수 있고, ‘고마워하기는커녕’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된다. 그렇지만 전라도방언에서는 ‘밥은캥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의 ‘고마워~’라는 말은 ‘고마워하기캥이는~’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일종의 방언문법 차이다. 이 뿐이 아니다. 표준어에서는 “~돈을 벌커녕은 쓰기만 한다”라는 말은 어색하므로 “돈을 벌기는커녕~”으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 방언에서는 “돈을 벌캥이는~”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자운영

콩과에 속하는 2년생 식물로 논·밭이나 풀밭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키는 10~25cm 정도.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개화 시기는 4~5월이다. 요즘에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녹비작물로 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라규채 생태사자

호남예술제

전통악기 연주회 | 전통악기 연주회 | 전통악기 연주회

■ 음악부, 무용부, 국악부, 협상악 연주회-경연일정

4월 27일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서 세부일정 확인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4월 27일 ~ 5월 10일까지)

2. 신청서 접수 (4월 27일 ~ 5월 10일까지)

3. 신청서 접수 (4월 27일 ~ 5월 10일까지)

문의처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문화재단